

PEOPLE

2025년 5월 12일 월요일



**노현우 드림요양보호사교육원 대표
나주시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나주시는 최근 노현우 드림요양보호사교육원 대표가 나주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

드림요양보호사교육원은 나주시 송월동 시청 사거리에 소재한 기업으로 10년 이상 요양보호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사회적협동조합 드림나눔엔케어 대표이사로 병행동행 매니저 자격취득 과정교육, 방문요양, 간호, 목욕서비스 등 지역의 어르신들에 대한 통합적인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노현우 대표는 “고향인 나주의 주민 복지 향상과 나눔·봉사의 가치 실천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나주=조환천 기자



**화순농업기술센터-능주고
농업 미래인재 양성 업무협약**

화순군농업기술센터와 능주고등학교는 최근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농업 미래인력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학생에게 체험 중심의 농촌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농업 발전과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입시·진학 관련 정보 공유, 교육 과정·커리큘럼 연계, 농심 함양으로 친농업적인 미래인재 양성, 자연·인간·농업·농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청소년의 리더십 함양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 자원과 전문인력을 적극 교류하며, 지역 기반의 실천적인 농업 교육 모델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화순=구영규 기자

**‘무등, 바다와 대지의 노래’
GICON, 실감형 융복합 공연 성황**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최근광주실감콘텐츠큐브 VX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실감형 융복합 공연 ‘무등, 바다와 대지의 노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아트주가 기획·제작하고, 미디어 아티스트 신도원 작가가 총연출을 맡았다. 문화체육관광부, 광주시, GICON 지원으로 제작됐으며, GICON은 주최도 맡았다.

공연은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을 배경으로 고려 말 충신 정지 장군, 임진왜란 의병장 김덕령,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까지 이어지는 광주의 저항과 평화의 역사를 홀로그램, 레이저, 3D 스캔, 생성형 AI 등 첨단 기술과 라이브 음악 및 무용을 융합해 예술적으로 재해석했다.

공연을 기획한 미디어아티스트 신도원 작가는 “무등산이 가진 정신과 이야기를 첨단기술로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었다”며 “예술을 통해 지역의 뿌리를 다시 발견하게 하는 귀한 시도였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제13기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제조업 붕괴…신규사업 확장·일자리 창출해야”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주제 강연
美 보편관세 추진 주요 무역국 타격 전망
국가간 공동대응 주장…신산업 구축 강조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들의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8일 광주 동구 호텔아트하임 지하 1층 대연회장에서 열린 제13기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에서 강연자로 나선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에 필요한 새로운 집, 어떻게 지을 것인가?’ 주제 강연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배근 교수는 “미국의 지난해 1월 기준 재정적자는 1조8300억달러에 달하며 금융위기 수준을 초과했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러한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보편 관세를 추진 중이다. 보편관세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국에 타격을 줄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은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지속 하락하며 자국 내 생산만으로는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직면하고 있다”며 “외국 기업을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특히 철강 및 제조업 중심의 기업유치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간 공동대응 필요성도 주장했다.

최 교수는 “한국정부가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기존 G7 체제에 한국과 인도, 호주를 포함한 G10 체제를 구축, 공동 대응해야 한다”며 “동북아 및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이 한반도 질서 변화에 주도적으로 개입, 경제적 입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녹록지 않은 국내 경제 사정도 포접었다.

최 교수는 “대한민국 경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무역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8일 광주 동구 호텔아트하임 대연회장에서 열린 ‘제13기 광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에서 ‘한국 경제에 필요한 새로운 집,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펼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수지 적자를 기록 중이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무역수지는 500억 원 이상 적자를 기록했고, 이전 정부와 비교해도 경제 성장은 훨씬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결과를 중국, 러시아 등 강경한 사회주의 경제정책에서 찾은 최 교수는 최대 원인으로 대중국 정책의 미숙함을 꼽았다.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한·중수교 이후 국내 무역 흑자에 기여한 대표적 국가인데도 윤석열 정부가 탈중국을 선언하면서 마이너스가 커지게 됐다는 것이다.

‘제조업의 붕괴’도 원인으로 봤다.

최 교수는 “대한민국은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국내에 설계 기업

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며 “국내에서 설계하더라도 생산할 기업이 없다는 뜻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대기업은 새로운 수익사업을 만들지 못하고 기존 사업을 방어하기 급급하다”며 “결국 협력업체 및 중소기업의 일감 감소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업 구조조정 실패가 있다”며 “일례로 청년 일자리 약화 문제는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기존 주력 사업들은 위축되면서 빚어진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기존 주력 산업들은 인력과 자동화 등으로 해소되기에 새로운 인력 충원을 위해서는 기업이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장시켜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

강기정 광주시장 ‘우리동네 나눔 히어로 1호’ 가입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 앞장

광주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1일 ‘우리동네 나눔 히어로’ 캠페인에 강기정 광주시장 1호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의 1호 가입은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본보기를 보여줘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기부 문화가 더욱 확산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 가능한 나눔이 자리를 잡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캠페인으로 조성된 기부금은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복지현안사업으로 지원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일을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면서 “광주시민 한 분 한 분이 나눔 히어로가 돼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동네 나눔 히어로’ 캠페인은 오는 12월까지 추진되며, 100만원 이상 기부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

광주도시공사, 가정의 달 맞아 직원 격려 행사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지난 8일 가정의 달을 맞아 직원 20명에게 격려 인사와 기념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 만 19세가 된 성년 자녀, 80세 이상 부모를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기념품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가족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김승남 사장은 “이번 격려 행사가 따뜻한 가정의 달을 보내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가정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



송승중 한국상하수도협회 사무총장, 5·18민주묘지 참배 송승중 한국상하수도협회 사무총장이 지난 10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영령을 참배하고 있다.



전남도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5월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전남도청 1층 윤선도홀에서 기념 사진전과 포토존을 운영한다.

전남도, ‘그날의 기억전’ 사진으로 다시 만나는 오월

19일까지 도청 윤선도홀서 사진전·포토존 운영

전남도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5월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전남도청 1층 윤선도홀에서 기념 사진전과 포토존을 운영한다.

이번 전시에선 전남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에서 주관한 ‘5·18민주화운동 전국사진공모전’과 ‘청소년 미술공모대회-희망세의 저자권’ 당선작 50여 점을 선보인다.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그 정신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참혹했던 당시 상황과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엿볼 수 있다.

사진 전시와 함께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고 5·18을 기념할 수 있는 포토존도 운영한다. 어두운 배경 속 무수한 노란 점을 통해 어둠 속에

서도 꺼지지 않는 민주화의 불빛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억을 형상화해 도청을 찾는 방문객이 5·18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기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전남도청 김영량문 앞 광장의 옛 전남도청 현판 앞에서 제45주년 전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17일엔 목포역 광장에서 기념행사 일환으로 남도 오월문화제가 펼쳐진다.

심재명 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전시와 행사를 통해 도민 모두가 5·18의 역사와 가치를 되새기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레브 강성현 대표, 동구에 고향사랑 기부금 전달 동구온밥식당 지정업체 레스토랑 ‘레브’ 강성현 대표가 지난 9일 동구청 정견실을 방문해 고향사랑 기금 100만원을 기탁 했다. 사진제공=광주시 동구